



중등 체육교사의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경험에 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박성기¹, 이안수²

<< 요약 >>

본 연구는 중등 체육교사들이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로 전국의 초중고 학생선수, 그리고 학생선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한 사례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으로 참여한 기간 동안의 경험에 대한 소고, 심층 및 집단 면담 자료를 수집하고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공교육을 기반으로 학생선수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계기로, 집단지성을 통한 전문성 확장으로, 학생선수 진로진학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주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경험을 통해 발전적인 진로 진학의 방향을 모색하고,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체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중등 체육교사,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1.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s9953011@gmail.com (주저자)
2.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aslee@knu.ac.kr (교신저자)

I. 서론

스포츠지원포털(2024)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학을 제외한 약 5만 여명의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선수로 등록되어 있다. 초·중·고 전체 560여만 학생의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교육부, 2024).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한 여고생 사격 선수가 우리나라 역사상 100번째 금메달을 따내며,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통한 학교 운동부 육성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집중 조명했다. 그동안 학교 운동부는 국가 주도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 아래 선수 양성에 힘써왔고, 그 결과 수많은 올림픽 스타와 국민 영웅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사례 뒤에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기회를 잃고, 다른 진로를 탐색할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수많은 학생선수가 존재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거나, 실업팀이나 프로팀에 입단해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과 달리,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팀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선수들은 미래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장승현, 2021). 과거에는 학교운동부 선수들이 대회 입상 실적만으로 진로와 진학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이 때문에 입상 실적이 없는 선수들은 학생선수로서 계속 진학하기가 어려웠다(최미란, 2023).

오랫동안 해운 운동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면서, 진로 선택과 준비에 대한 막막함에 부딪히게 된다. 실제로 학생선수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진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운동 외의 길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은정, 이근모, 장승현, 2015). 이는 은퇴한 운동선수들의 취업 현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한체육회(2023)의 은퇴선수 진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졸업 후 은퇴율은 30%, 대학 재학 중 은퇴율은 27.6%로 나타났다. 더욱이 은퇴 선수의 취업 현황을 보면, 스포츠 관련 업종 취업률은 29.8%에 불과한 반면, 무직 비율은 41.9%에 달했다.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64.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 23.6세의 나이에 4만 7,046명이 은퇴했으며, ‘은퇴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38%), ‘운동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20%)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체육회, 2023). 이는 운동선수들이 빠른 은퇴로 인해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최문정, 2016). 특히 학생선수 시절 충분한 진로교육을 받지 못해 다양한 진로 정보를 얻기 어려웠고, 그 결과 진로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김은정, 이근모, 장승현, 2015; Van Raalte et al., 2017). 따라서 현재의 학생선수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진로·진학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한시완, 손환, 2018). 그 일환으로,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운영하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체육진흥회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체육 수업, 학교 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기대, 2022). 이곳에서 운영하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선수, 경력 전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1:1 비대면·대면 상담과 더불어 전국 초·중·고 학교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상담의 취지는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맞춤형 진학 상담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여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탑다운 방식의 강의식 진로교육, 강제성 행사로 인한 부담, 홍보 부족, 상담사의 전문성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와 학생선수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이완영, 2022). 오히려 이러한 방식이 학생선수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흥미를 떨어뜨려, 진로교육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하희문, 이병구, 2022). 진로진학 상담이 학생선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학생선수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생선수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권민정, 유정애, 2014; 박세연, 윤대현, 정용철, 2017; 손환, 홍은아, 2014; 이연규, 유정애, 이현석, 2017; 이완영, 2022; 장승현, 2021; 조성원, 2022; 제성준, 박성기, 2021; 하희문, 이병구, 2022; 한시완, 2016; 한시완, 손환, 2018). 이 선행 연구들은 학생선수 진로교육사례와 진로교육 현황, 학생선수들의 진로탐색 유형, 진로결정 유형 및 진로결정수준, 학생선수들의 진로전환경험에 관한 주제들로 대부분 연구가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것과 달리, 실제로 이들에게 진로진학 상담을 담당하는 교육 주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선수들에게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를 담당하는 교사와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 또한 필수적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대한체육회 등의 학생선수 진로교육 사업에서 강사진이 대부분 전·현직 운동선수 출신으로 구성되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생선수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지도하며 진로·진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등 체육교사들이 상담에 참여한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중등체육교사의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상담위원이 된 계기, 상담 사례, 상담 과정에서의 역할과 감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중등 체육교사의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에 함께 참여한 나와 우리들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경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이다. 협력적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참여자들이 함께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협력적으로 연구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연구로 자문화기술지의 주관적 해석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연구 방법이다(Shapiro & Atallah, 2020). 이를 통해 중등 체육교사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진로진학 방향을 모색하고,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를 위한 체육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주체인 나는 연구자이자 연구 참여자로서, 교직 경력 20년 차의 체육교사이다. 이 중 8년 동안 학교운동부를 지도하며 학생선수들의 진로·진학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또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체육진흥회의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직 경력 3~4년 차에는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교사로 2년간 학생선수들을 지도했다. 그러나 초임교사 시절이었던 만큼 체육교사이자 운동부 지도교사로서 여러 역할 갈등을 겪었고, 학생선수들의 진로·진학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당시에는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과 학부모와 상담하며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교직 경력 10년 차에 체육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선수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운동부 지도교사로서 맡은 중목의 학생선수들뿐만 아니라, 체육고등학교 내 여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해 보았다. 하지만 정보 수집과 자료 제작 등에 한계를 느끼던 중, 다른 지역에서 오랜 시간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경험을 쌓아온 선배 교사의 특강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2019년부터 학교체육진흥회의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으로 위촉되면서, 같은 관심을 가진 다양한 지역의 교사들을 만나 함께 상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자와 함께 본 연구

참여자는 학생 진로진학 상담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교사들로, 연구자와 협력하면서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인 나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경험을 통해 그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상담의 내실화를 위해 각자가 경험했던 상담 과정을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기본적 특징

연구 참여자	나이	성별	소속	학력
연구자	44세	남	중학교	교직경력20년, 운동부 지도교사 8년, 진로진학 상담경력 4년
A교사	37세	남	고등학교	교직경력12년, 운동부 지도교사 5년, 진로진학상담경력 2년
B교사	37세	남	고등학교	교직경력10년, 운동부 지도교사7년, 진로진학상담경력 1년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의 자문화기술지가 중심이 되는 연구로 연구자와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 활동을 함께한 체육 교사 2인의 경험의 과정을 내면화하면서 이야기한 협력적 문화기술지(collaborative autoethnography)이다. 협력적 자문화기술지는 연구 참여자들이 함께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특징이다(Bradley et al., 2017). 이에 따라, 연구자인 ‘나’와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에 함께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부분 협력(partial collaboration)을 중심으로 상담 경험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객관화하였다. 이를 통해, 자문화기술지 연구에서 지적되는 질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나를 포함한 연구 참여자들의 기억자료, 심층면담, 집단 면담, 상담에 활용한 각자의 상담 자료와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제공해 준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만족도 설문 결과를 주요 자료로 수집하였다. 우선 나의 기억자료 및 메모, 상담 일지를 개인 자료로 수집하였고,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및 집단 면담 내용을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은 약 1시간 정도 2회, 집단 면담은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위원 워크숍 4회, 학생선수 진로진학 대면상담 2회를 하는 동안 30분씩 진행하였으며, 비공식적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도 수시로 내용을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연구의 진실성

수집된 자료는 전사 작업을 거친 후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경험과

다양한 사례에 대한 소주제를 정하고 주제별로 자료를 분류한 뒤 자료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이 되기 전까지의 경험과 상담위원이 된 계기,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으로서 다양한 상담 경험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 진로진학 상담을 통한 교사의 변화에 대한 주제를 도출 후,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의 발전 방향,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의 미래, 체육 교사의 전문성 함양으로 경험에 대한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자문화기술지 연구에서 연구의 진실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정현철, 제성준, 2021)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로 일반화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타당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과 다양한 자료에 대한 해석을 통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연구 의도에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성원 간 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객관도를 높이기 위해 스포츠 교육학 교수 1명, 스포츠 교육학 박사 2명의 동의를 얻어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각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중등 체육교사의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경험

1. 체육교사들의 노력과 도전

체육교사로서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학교 체육 수업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군가는 학생선수들에 대한 진로진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만 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진로진학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맞물려 체육교사들이 모여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이 시작된 계기는 우선, 학생선수들의 진로진학에 있어서 자신들이 꿈꿔온 것들에 도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마음으로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진로진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을 한자리에서 모이게 하였다.

나: 저도 체육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학교에 진로진학 컨설팅을 오신 선생님과 인연이 되었고, 그 후로 진로진학상담위원으로 신청하고, 이렇게 위촉이 되었습니다.

A교사: 우연히 진로진학 상담을 하고 계셨던 선생님과 식사 자리에서 제 경험을 나누던 중,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학교체육진흥회 상담교사로 초대받고, 학교체육진흥회와 연결되어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B교사: 체육교사로서 운동부 지도 중 학생선수들의 진로진학 문제를 경험하고, 특기자 전형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있던 중에 진로진학연구회를 알게 되었고,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전국 단위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024. 2월 집단면담)

모두가 학생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작용했지만, 그에 앞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차지하는 학생선수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학생선수들에 대한 진로진학 상담은 학교현장에서는 큰 이슈가 아닐 수 있다. 학교 담임교사와 진로상담 교사가 있는 상황이지만, 학생선수들에 대한 진로진학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현실이다. 학생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운동부 코치들조차도 진로진학 상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였기에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모르죠. 예전에는 담임선생님, 진로진학 부장, 운동부 코치, 체육 선생님들 모두 학생선수 진로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요즘은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유튜브를 통해 정보가 많이 확산되며 상황이 달라졌지만.. (A교사)

운동부 지도자들이 급여도 받고 전문성도 높아서 진로 진학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막상 보니 지도자들이 상담의 한계가 보였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고 공부하며 상담을 시작했어요. <중략> 이걸 일반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 선생님께서 맡기기에는 어렵죠. (B교사)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사로서 학교운동부를 맡고 있다면, 학생선수들의 진로진학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체육교사라면 다른 업무들로 학생선수들에 대해 진로진학상담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우리 역시 학교운동부 지도교사를 하면서 더욱더 학생선수의 진로진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근무하는 학교와 지역 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한 경험들이 진로진학 상담위원으로 활동 함에 있어 좋은 바탕이 되었다.

그에 더해 학생선수 출신이었던 A교사와 학창시절 학생선수들과 가까이 지냈던 나는 더욱더 학생선수들의 진로진학 상담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몸소 경험하였다. 축구선수를 꿈꿨던 A교사는 학생선수를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찾아서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게 하였고, 나 역시 학창시절 운동부 친구들을 떠올리며 지금의 학생선수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서 진학하는 학생이 많이 없었던 탓에 더욱더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상담을 강조하게 되었다. 진로진학 상담이 우리가 지도하는 학생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선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과 우리의 경험들이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에 참여한 계기로 작용하여 그것들을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다.

고등학교시절 우리 학교에는 야구부가 있었다. 같은 반에도 야구부 친구가 있었다. 고3이었던 그때, 친구들은 대회 입상실적이 없어서 대학진학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학교 성적까지 좋지 않았기에 더욱더 갈 곳이 없었다. 결국 몇몇 친구들은 그냥 일자리를 찾아서 공장에 가기도 했고, 2년제 미달학과에 그냥 진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의 기억자료)

저는 7년 동안 운동부를 운영했어요. 3개 부서를 맡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인연이 생겼고, 그 중 한 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셔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운동부 상담을 계속 해왔고,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음을 느꼈어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니 반응이 좋았고, 그렇게 계속 이어왔습니다. (B교사)

2. 다양한 진로와 현실적인 선택지 제시

우리들은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며 본격적으로 상담 위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워크숍을 통해 지난해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에 대한 안내와 올해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각 분야별, 종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경험을 다양한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교육부, 학교체육진흥회 주관의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 2019년부터 진행되어 이미 여러 교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경험과 사례들은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비대면 1:1 진로진학 상담’, ‘대면 1:1 진로진학상담’으로 안내를 하고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전국에 학교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상담위원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 및 학교에 참여희망을 하여 배정받은 학교로 진로진학 상담을 가는 형식이었다.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지역 내에 신청을 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신청을 하였다. 이 또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일정과 자신의 업무를 고려하여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찾아가는 학생선수 상담은 전국에서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다양한 종목의 학교운동부에서 많은 신청을 하였다. 1:1 진로진학 상담은 7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하였는데, 1주~3주 주말동안 총 6회에 걸쳐 비대면 온라인 상담으로, 4주차 주말은 대면 상담으로 서울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사용을 협조 받아 진행하였다. 비대면 온라인 상담과 대면상담은 초중고 학교운동부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루에 6~8명씩, 1인당 30분씩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하여 1:1상담으로 우리들은 각자 40명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상담 프로그램별 특징이 있었다. 찾아가는 학생선수는 상담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로진학 상담이 어려운 점은 있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학교운동부가 상담을 신청해주었지만, 더욱 많은 학교에서 신청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상담의 기회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반면에 1:1 비대면, 대면 상담은 좀 개인적 요구를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었고, 비대면 상담은 지역적, 시간적 제한사항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대면 상담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학생선수와 학부모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을 신청한 학교 리스트를 받았을 때, 우리 지역에서 신청한 학교는 1군데뿐이었다. 개인적으로 많은 학교를 찾아가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음에 아쉬움이 있었고, 또한 인근 지역의 학교로도 살펴보았지만, 학교 일정상 참여가 힘든 경우도 있었다. (나의 기억자료)

아이들마다 각기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대면 상담은 급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좋은 점이 있어요. 반면, 대면 상담은 바로 원서를 써야 하는 친구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찾아가는 상담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또 다른 매력이 있죠. (B교사)

축구부 학생선수 출신이었던 A교사는 축구에 관한 진로진학에 대해 오랜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나와 B교사는 자신이 맡았던 운동부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 기간 상담을 통해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우리들은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에 오랜 경험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우리들이 지도해보지 않은 종목이나,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로진학에 대한 안내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다. 현장에서 대면상담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비대면 상담 중에는 정확하게 확인 후 재안내를 해주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과 대면상담을 하면서 중학교 진학과 고등학교 야구부 배정 방식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워 당황했지만, 함께 상담을 진행한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나의 기억자료).

작년에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는 피겨, 태권도, 육상 등 다양한 종목을 다뤘지만, 제가 지도한 경험이 없는 종목이라 상담하기 어려웠어요. 올해는 제가 축구 자료를 준비하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 축구 위주로 배정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위주로 상담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A교사)

저는 야구, 수영, 사격부를 맡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선수 상담 지원단을 운영하긴 하지만, 이번 상담에서는 종목별로 원하는 목표가 전혀 달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B교사)

우리는 상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비대면, 대면 상담에서 담당 학교와 학생선수를 배정받으면 그에 맞게 자료들을 만들었다. 자신들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은 특히 진학에 도움이 되는 전년도 입시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3학생선수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학생선수들의 입시 결과들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제공된 입시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홈페이지에 제공된 입시 결과에는 단순히 내신 성적에 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입상실적과 개인기록들이 매우 중요한 합격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 우리들은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들의 데이터를 역 추적하는 방식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

찾아가는 학생선수 상담으로 중학교 역도부 학생선수들을 만나러갔다. 역도부를 맡고 있어서 종목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다. 우선 학생선수 등록 현황을 살펴보고,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진학에 대한 자료들을 만들었다. 특히 중3학생 선수들은 체육고등학교에 합격을 한 상태였기에,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을 보여주면서,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진학이 매우 어려운 과정임을 설명하면서, 운동에 임하는 각오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운동이외의 다양한 진로를 찾아 진학한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나의 기억자료)

워크숍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은 2월에 춘계연맹전이라는 전국 대회가 있어요. 그때 연맹 홈페이지에 출전 선수 명단이 올라오는데, 그걸 다운로드해서 어떤 고등학교가 입상

실적을 냈는지 조사해요. 고3 학생들을 조사하다 보면, 어떤 대학은 준우승 이상의 학생들이 많고, 또 어떤 대학은 작년엔 8강이었는데 어떻게 입학했을까 궁금하죠. <중략> 하지만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선 열정과 집요한 태도가 필요해요. 사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A교사)

제 나름대로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들로 자료들을 만들어서 상담에 활용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자료 준비를 거의 1달 가까이 하니깐, 나름 엑셀파일로 자료들을 정리해서, 입시 결과들을 분석해줬습니다. (B교사)

초중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교급, 종목별로 서로가 원하는 정보가 달랐다. 학생선수들의 상담참여도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참여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고등학생 학부모들과는 학생의 대학 진학에 관해서 상담을 진행하였지만, 초중학교 학부모들과는 진로에 대해서 특히, 운동 이외에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며 상담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우리들은 학생선수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학생선수 진로진학이라 함은 현재로서는 운동이라는 진로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상담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운동 이외의 진로를 안내해 주며 또 다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학생선수들을 지도하고 상담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로서 학생선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눈앞의 대학 진학을 넘어서서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도 상담을 진행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더욱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다.

고등학교는 대입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서 대입 준비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상담을 많이 했어요. 반면,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학업에 관한 상담을 더 많이 했죠. 진로에 대해 얘기할 때, 학생들에겐 먼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진로보다는 진학, 결국 대학에 가는 것도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해요. (A교사)

일단은 진학에 포커스를 둡니다. <중략> 이를테면, 뭐 축구 상담 오래 했던 부분이 있는데, 곧 제 이제 주변에도 사실은 엘리트 축구선수 하다가 대표팀까지 간 이야기, 그냥 프로에 간 이야기 등등 다양한 케이스들도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해주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직업군이 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B교사)

누군가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담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방향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우리들은 특히 학부모들에게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 많은 학생선수들을 지도하고 상담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생선수, 학부모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 이외의 관련 진로를 찾아간 사례들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학부모님들 만나면,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들이 손흥민처럼 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게 생각보다 힘들구나”, 고등학교 때는 “와, 축구가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하고 후회도 하지만, 그래도 대학까지는 시켜봐야지라고 생각하시고, 대학에 가면 학기별로 또는 연간으로 큰 경제적 부담에 학부모님들이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시죠. (A교사)

실적이 좋지 않다고 말하기보다는, 선택지를 열어주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전체 1번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이런 길도 있고 조금만 더 하면 이런 방향도 있다고 알려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 기량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이길 준비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B교사)

3.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의 보람과 한계

우리는 상담을 마치고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고,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담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힘이 되었고,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이 초중학교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에게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함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현재 학생선수가 아니지만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이 운동을 시작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학생선수의 진로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의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학생과 학부모님이 정말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구나 싶었죠. 그런 부분에서 감사함을 느껴주시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는 정말 만족감을 느껴요. (B교사)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담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하루에 배정된 상담위원들에게 6~8명의 학생들이 30분~40분 시간으로만 이루어졌다. 주어진 시간에 우리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전할 수 없었고,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위주로 상담을 진행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남았다. 이러한 한계점은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일회성 상담이 아닌 학생선수가 자신의 진로진학에 대해서 꾸준히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번 상담은 크게 비대면 상담, 대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으로 진행하였다. 비대면 상담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지역적 한계를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종목의 학생선수들을 상담할 수 있었고, 대면 상담을 통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운동부가 있는 수도권에서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학교운동부의 신청에 따라 찾아가는 학생선수 상담을 진행하였다. 비대면 상담은 접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상담을 취소하거나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계획된 상담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도 있었다.

이에 반해 대면 상담은 상담을 위해 긴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었다. 이번 상담의 경험을 통해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선수들의 관심과 참여였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을 위해 교육청을 통한 공문과 전국의 체육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에 힘을 쏟았다.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교현장의 체육교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상담의 온기가 전국적으로 퍼져 계속해서 더 많은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진로진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학생선수들이 진로교육 기회의 부족하다는 결과(한시완, 2016)들을 볼 때 이제는 이러한 기회들이 제공되는 시점에서는 그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며, 학생선수들은 물론 해당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지도자들의 관심 또한 커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상담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학생마다 최소한 한 3~4주 정도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정말 뭐 학생 선수 진로 상담할 때 길어야 40분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40분 안에 내용 전달하는데도 바쁘니까 지금 시간 안에서는 사실은 대학교 상담하기에도 조금 빠듯한 시간 아닌가 싶어요. (A교사)

IV. 중등 체육교사의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경험의 교육적 의미

1.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의 필요성과 공교육 기반의 발전 방향

우리가 참여했던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2019년부터 교육부 협조 하에 학교체육진흥회 주관으로,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이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으로 참여한 사업이다. 이와 유사한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2016년부터 시작된 대한체육회에서 ‘찾아가는 운동부 진로교육’ 사업이 있었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은퇴선수들을 진로교육 전문가로 양성하여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선수들을 만나는 사업으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학생들은 강사의 교재 위주의 일방적 진로 교육 방식과 매년 업데이트 되지 않는 자료들에 아쉬움을 나타냈다(하희문, 이병구, 2022).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진학 지원 사업들이 있었지만, 학생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결국은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은 일반학생들이 사교육에서 진로 컨설팅을 받듯이 외부에서 체육 관련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김동철, 김성덕, 김수잔, 2013). 적지 않은 비용 또한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공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공교육 기반이라 함은 사교육에서 다루는 진로진학 상담과는 차별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한 실기지도와 대학 선택에 대한 컨설팅을 넘어서서 학생선수들이 가진 적성과 고민을 바탕으로 학생선수들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윤기준, 이윤수(2019)의 연구에서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체육 관련 진로진학 상담이 학교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수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공교육에서는 극소수의 학생선수들과 대부분의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대입시반이라는 이름으로 실기지도에 국한되는 방과후 활동이 체육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이야기하며 양질의 체육진로진학교육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경험은 학교체육진흥회, 교육청, 학교의 협조하에 중등 체육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학생선수들을 위해 공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영역이었기에 더욱 의미를 가진다.

나: 좀 전에 학생, 학부모님 상담했는데, 며칠 전에 입시 컨설팅도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40만 원을 줬다고 했어요.

A교사: 근데 제가 보니까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돈 받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B교사: 그러니까 그 컨설팅 초창기 때 사실 저한테 자문을 좀 구했던 데가 한 2군데 있었어요.
<중략> 사교육에서 입시 상담이 아마 회당 50만원씩 받을걸요. 그게 지금 한창 철인 건데
(2024. 8월 집단면담)

우리는 상담을 통해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만족해하는 모습에서 지금의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이 계속해서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느꼈다. 학생선수들이 운동이라는 진로를 선택해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두가 그 결과가 같을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진로를 변경할 수도 있다. 우리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길로 향해갈 수 있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준 것이다. 지금까지 진로진학교육이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의 초점이 컸지만, 이번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운동을 시작하려는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 것을 통해 이른 시기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인식하고 탐색하고 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공교육 안에서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현장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적 기관에 기댈 수 있는 길이 없었기에, 학교체육진흥회의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다음 상담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학생선수 진학·진로 상담이 올해도 아쉬움 속에 마무리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런 기회가 자주,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하지만 학생선수는 그 기회가 제한적이고, 현장 지도자들은 한계가 있다. 의존할 데가 많지 않다고 현실의 안타까움을 전했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경험에 대한 나의 소고)

활성화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찾아가는 상담 그 학교들만 확대를 시켜줘도 이제 사실은 그 애들이랑 1시간 이제 얘기하고 호흡해도 대부분 부족해 하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보면 선생님 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애들이 사실 대다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찾아가는 그런 상담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학교로 확대가 되면 좋을거 같아요. (B교사)

2. 집단지성을 통한 전문성 확장

공교육에서 교사들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과 나눔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신기철, 송지환, 2023). 우리 상담위원들도 이러한 풍토에 따라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을 위해 각자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들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서로에게 나눠주며 모두가 함께하게 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들이 모여 더 큰 지식과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너무나 다양한 종목의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우리들이 모든 종목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들이 모여 우리들의 실천적 지식과 경험이 됨으로써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의 실제적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양정은, 최애란, 2020). 나의 부족함을 우리들의 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담위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의 정서적 유대감은 우리들의 집단지성을 키워 가며 전문성 확장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오중근, 2021). 지금의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서로의 힘을 계속해서 모아가며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다. (나의 기억 자료)

뭐 일단은 저는 축구를 잘 가장 잘 알지만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잘 몰랐는데, 상담 지원단에서 공유해 주는 자료를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고요. 특히 체대 입시 자료가 이제 그 상담지원단에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은 자료와 방대한 자료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좀 그런 쪽으로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A교사)

그 분야에 대해 다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윈수영이나 수구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러면 종목에 맞는 학교도 찾아보고, 그 학교의 입시 결과도 확인해야 해서 상담을 해본 적 없는 종목을 맡으면 최소한 3~4시간은 준비해야 돼요. 매년 다양한 종목을 맡다 보면 점점 전문성이 쌓이죠. <중략> 제가 가지고 있는 야구 특기자 합격자 자료는 6년 동안 약 1천 명 정도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요청하면 그걸 드리기도 해요. 이런 자료들이 모여서 서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B교사)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우리들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또한 집단지성을 통해 더욱 전문성을 확장시켜가는 장으로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전문성의 함양은 윤기준, 이윤수(2019)이 진로교육관점에서 체육중점학교들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진학 자료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학생들의 진로진학 상담에 활용한 것과, 김준형, 박정준(2019)이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공유가 진로진학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우리들은 서로의 전문성을 넓히기 위해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한 워크숍과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체육계열 전형분석과 지원전략, 체육계열 대학별 전형 방법,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 실기 운동 가이드 등을 모두 포함한 상담 가이드북도 제작하였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에서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전문성이다. 이번 상담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생각하는 진로진학의 방향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전문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계속해서 효과적인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사업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일 방향적인 연수를 통해서가 아닌, 공교육 안에 있는 현장 교사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장을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게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여진다.

이제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그런 학생 선수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좀 쌓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선수 진로진학 연구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제 고민 중입니다. (A교사)

어우 도움 많이 되죠. 사실은 진짜로 이런 자료들이 전국의 학교 현장에 있는 체육교사, 운동부 지도교사들에게 진짜 공유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하시든 안 하시든 이런 부분은 진짜 많이 도움 되는 거 같아요. (B교사)

3. 학생선수 진로진학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이 실제로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뿌듯함을 안겨준다. 상담을 진행한 학생선수들은 한시완(2016)의 연구 결과와 같이, 운동선수 이외에도 코치나 체육교사 등 지도자 관련 진로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하며 오랜 시간 동안 가까이에서 지내며 자연스럽게 해당 직업을 진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선수들이 체육 관련 분야로 진로를 선호한 이유는 진로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체육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고, 진학 방향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선행연구(차은주,

김영재, 2012)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우리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하면서 체육 이외의 분야로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폭넓은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진로 탐색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목표로 운동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이양구, 권형일, 2015).

학생선수들은 경기력이 좋지 않거나 불투명한 진로 상황에서 방황하며,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대학 진학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있다(권민정, 유정애, 2014).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운동에만 전념하다가 진로를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운동 이외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 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담을 진행했다. 진로교육은 각 학생이 지닌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탐구하며 발전시켜 스스로 원하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학생선수들에게는 그들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운동 이외의 다양한 진로 선택지를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한시완, 2016).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체육 이외에도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돕는 진로교육은 실천적인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과정은 학생선수들이 진로진학에 대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학생선수들은 진로진학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불투명한 진로 상황을 고민하고, 계획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한시완(2016)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저한테 아 뭐 진로진학 상담은 어떻게 보면 어 앞이 가려져 있는 학생 선수들에게 앞을 볼 수 있게 하고 좁게 보고 있는 학생 선수와 학부모님들한테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B교사)

학생선수들에게 현재 상태와 미래 진로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은 깊이 있는 고민이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이미 명확한 진로를 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좀 더 준비가 되었을 때가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한 학생들 중에는 부상이나 실적 부족, 기량 부족으로 운동보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많았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과정이 당연하다고 인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가 되어야만 깨닫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느꼈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경험에 대한 나의 소고)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등 체육교사들이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로 초중고 학생선수, 그리고 학생선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한 사례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인 ‘나’와 함께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으로 참여한 2명의 체육교사와 함께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위원으로 참여한 기간 동안의 경험에 대한 소고, 심층, 집단 면담 자료를 수집하고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많은 학생선수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와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운동선수는 물론 또 다른 진로를 안내하며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학교현장에서 일반학생들과는 조금 특수한 학생선수들에 대한 진로진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선수를 지도하거나, 학생선수 진로진학에 관심이 많은 중등 체육교사들의 열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학교체육진흥회 주관으로 시도교육청의 협조 하에 진행된 사업으로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비대면 1:1상담, 대면1:1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장점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초중고 학교 운동부 지도교사들을 통한 안내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위원들은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자신들의 경험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에 참여하면서 자신들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선수들 또한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을 통해 좁고 어둡게만 보였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더 넓고 밝은 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높은 만족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을 마치고 아쉬움과 미흡한 부분을 우리들은 함께 느끼고 있었다. 우리들을 포함해서 많은 상담위원들과 학교체육진흥회에서 홍보에 대한 노력이 매우 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학교현장에서 그리고 학생선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더욱 요구되는 부분으로 남았다. 또한 학생선수들과의 상담으로 주어진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쉬운 시간이었다. 어쩔 수없이 진학위주의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

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공교육을 기반으로 학생선수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위원으로 참여한 체육교사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하나로 모여 자신의 경험과 정보,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집단지성의 힘이 우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결국은 체육교사로서 학생선수 진로진학에 대한 전문성을 확장시키고 계속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생선수 진로진학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주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위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더욱 많은 대상자를 통해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방법의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에 참여한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상담위원으로서의 체육교사, 상담을 받는 학생선수, 학부모의 경험을 모두 이해함으로써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추수 상담까지 이어지는 종단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해볼 수 있다.

운동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뛰어난 학생선수들에게 자신의 꿈을 더욱 크게 펼칠 수 있는 힘으로,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더욱 많아져서 학생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논문 투고일: 2025. 1. 14. ※ 논문 수정일: 2025. 3. 19. ※ 게재 확정일: 2025. 3. 21.

〈참고문헌〉

- 교육부(2024).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 권민정, 유정애(2014). 비인기종목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탐색 유형 탐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8(1), 101-116.
- 김동철, 김성덕, 김수잔(2013). 학생과 학부모의 체육대학 입시학원 선택 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2(6), 347-358.
- 김은정, 이근모, 장승현(2015). 여자농구선수들, 사범대학에 오다: 학생선수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 **한국체육학회지**, 54(4), 139-155.
- 김준형, 박정준(2019). 체육 계열학과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3(4), 17~32.
- 대한체육회(2023). **2023년 은퇴선수 진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박세연, 윤대현, 정용철(2017). 비인기종목 학생선수의 운동수준과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추적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6(2), 197-207.
- 손 환, 홍은아(2014). 한국형 학생선수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53(3), 621-633.
- 스포츠지원포털(2024). **학교운동부 등록현황**. <https://g1.sports.or.kr/index.do>
- 신기철, 송지환(2023). 초등체육 교사 학습공동체 참가자의 협력학습 경험을 통한 체육교과 전문성 신장 방안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7(6), 17-27.
- 양정은, 최애란(2020). 교사 학습공동체 교사들의 과학 실천 기반 수업을 위한 PCK 구성.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0(5), 565-582.
- 오중근(2021). 체육교사의 관계성 지지와 공동체 의식 및 학습참여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1(20), 155-165.
- 윤기준, 이윤수(2019). 체육중점학교 운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체육과학연구**, 30(3), 555-571.
- 이기대(2022).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은? 학교체육진흥회를 중심으로. **우리체육**, 27, 52-56.
- 이양구, 권형일(2015).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학생선수의 체육, 스포츠 진로결정유형 분류 방안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2(2), 41-57.
- 이연규, 유정애, 이현석(2017). 중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결정유형 및 진로결정수준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4(1), 1-16.
- 이완영(2022). 대한체육회 주관 선수 진로지원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3), 171-187.
- 장승현(2021). 중도은퇴 학생선수의 새로운 진로로의 전환: 비(非)스포츠 진로전환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체육학회지**, 60(2), 119-132.
- 정현철, 제성준(2021). 통합체육 수업개선을 위한 경험에 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5(4), 149-162.
- 조성원(2022).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과정과 진로탐색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 13(2), 51-57.
- 제성준, 박성기(2021).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자기 주도적 진로 개척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2), 67-80.

- 차은주, 김영재(2012). 운동중단 학생선수의 직업경로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1(4), 125-136.
- 최문정(2016). 은퇴선수 진로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55(1), 75-96.
- 최미란(2023). 학생선수의 성격 특성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62(6), 407-419.
- 하희문, 이병구(2022). 대한체육회 ‘찾아가는 운동부 진로교육’ 사업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체육학회지**, 61(5), 399-410.
- 한시완(2016).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개입 성과 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2), 17-36.
- 한시완, 손환(2018).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교육의 방향 및 체계 탐색.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827-838.
- Bradley J. Bakera, Xiaochen Zhoua, Anthony D. Pizzoa, James Dub, Daniel C. Funka(2017). Collaborative self-study: Lessons from a study of wearable fitness technology and physical activity. *Sport Management Review*. 20, 114-127.
- Shapiro, E. R., & Atallah-Gutiérrez, C. (2020). Cultivating Feminist Transnational Practice with Immigrant Women: A 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Women & Therapy*, 44(1-2), 172-192.
- Van Raalte, J. L., Andrews, S. R., Cornelius, A. E., Brewer, B. W., & Petitpas, A. J. (2017). Student-athlete career self-efficacy: Workshop development and evaluation. *Journal of Clinical Sport Psychology*, 11(1), 1-13.

〈Abstract〉

A Collaborative Autoethnographic on the Experience of Middle and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Providing Career Guidance to Student Athletes

Park, sungki¹, Lee, Ansu²

This study is a collaborative autoethnographic on the experiences of middle and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s career guidance counselors for student athletes. It aims to examine cases of career guidance counseling conducted for all school sports team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and students who wish to become student athletes nationwide, an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that emerged during the process. Data from short, in-depth, and group interviews were collected and inductive category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xperiences during the period of participation as career guidance counselors for student athletes. As a result, career guidance counseling for student athletes wa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good information to student athletes based on public education, provided an opportunity to explore and design career paths, and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career guidance for student athletes through the expansion of expertise through collective intelligence. Based on the results and discussions of the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experience of career guidance counseling for student athletes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seek the direction of progressive career guidance and establish various physical education policies for school sports teams and student athletes.

Keywords : Middle and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 Student athlete, Career guidance, Collaborative autoethnographic

1.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9953011@gmail.com (Lead Author)

2.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lee@knu.ac.kr (Corresponding Author)